

AN-  
THRO-  
PO-  
CENE

박범순

인류세

# 대항해시대와 인류세 : 라투르의 ‘평평한 존재론’에 대하여

박범순

-----  
과학사를 전공하고,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인류세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1990년대 초반에 나온 브뤼노 라투르의 이 유명한 тезис는 근대화의 실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역사적 과정으로서 근대화는 일어났는데, 실제로 벌어진 내용은 근대인이 말하고 추구했던 이상과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이전 시기의 온갖 미신과 편견을 극복하고 이성과 경험에 바탕한 세계를 건설하고자 주장했던 것들, 즉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 문화와 자연, 정치와 과학 사이의 이분법적 분리는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간과 비인간(자연물, 인공물 포함) 사이의 연결망 속에서 지식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어 왔다고 라투르는 주장한다. 근대인의 ‘언행 불일치’인 셈인데, 그는 이 딜레마를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적 문제로 보기 보다는 인식론적 문제로 간주한다. 이로써 근대화 과정 자체를 반대하는 반(反)근대주의나 이를 뛰어넘자는 탈(脫)근대주의가 아니라, 근대성 개념 설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非)근대주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의 표현을 빌어오면, “누구도 근대인이었던 적은 없다. 근대성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근대 세계는 존재한 적도 없다.” 이처럼 그는 근대성을 “회수”하고자 했다.<sup>1</sup>

라투르는 최근 인류세 개념에서 근대성을 회수할 방

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약간 선언적인 톤으로 “(인류세라는) 지사학적 연대기(geohistorical period) 이름이 ‘근대’와 ‘근대성의’ 관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는 데 가장 적절한 철학적, 종교적, 인류학적, 그리고 - 앞으로 곧 볼 텐데 - 정치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sup>2</sup> 실로 현 지구의 상황은 인류세 개념의 효용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후 위기와 함께 COVID-19 팬데믹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변해가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자로 등장하는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라투르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2021)의 서문에서 근대성의 문제, 지구의 변화, 생존의 문제를 엮어서 말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람과 장소의 분리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근대주의의 폐허에서 사는 것은 물론 신이 나지만, 지금 당장은 두렵기도 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팬데믹 시기에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sup>3</sup>

근대성의 재인식에서 인류세에 대한 통찰까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라투르의 사유로부터 우리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중심적 세계관/자연관의 극복일 것이다. 그런데 무언가 잘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객체의 형이상학적

평등성, 이른바 평평한 존재론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가슴’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혼란스러움은 라투르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철학자 레비 브라이언트가 올해 『객체들의 민주주의』의 한국어판 출간 기념 강연에서 한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책은 존재론에 관한 저작,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는 것의 본성에 관한 저작이지, 가치, 규범성, 정치, 혹은 윤리에 관한 저작이 아닙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라투르도 존재론과 정치철학·윤리학 사이의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상정했나?<sup>4</sup> ‘Is’와 ‘Ought-to’의 이분법을 극복하자는 것이 구성주의의 핵심이 아니었나? 라투르는 객체들에 권리를 부여해서 현실 세계의 문제를 설명하고 풀려고 하지 않았나?

이 짧은 에세이에서 평평한 존재론에 대한 복잡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과 비인간이 연결망을 형성해 함께 작동하고 이를 통해 영향력을 확산한다는 라투르의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의 성격에 관한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그 영향력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매우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라투르는 바로 이점을 소홀히 한 것 아닌가?

## 근대성의 작용을 ‘낮설게’ 하기

1947년 프랑스 지방에서 대대로 포도주를 만들어 파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라투르는 베이비붐 세대이며 인류세의 관점에서는 ‘거대한 가속(Great Acceleration)’의 시기에 살아온 사람에 속한다.<sup>5</sup> 고등학교는 파리의 명문 사립학교를 나왔지만, 대학과 대학원은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녔고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다. 라투르는 이때 이미 주류 철학자들이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던 태도, 즉 과학을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인식의 문제로만 보는 것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1973년부터 2년 동안 병역의 의무를 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대신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일했는데, 여기서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과학 지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관한 연구를 세울 수 있었다. 라투르는 기술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한편 프랑스 정부 과제도 수행했는데, 그중 하나는 “왜 아프리카에서는 능력 있는 흑인 경영자를 발견하기 어려운가”를 탐구하는 것이었다. 라투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기술학교에서는 흑인 학생들이 추상적인 이론만 공부하고 기계 작동과 같은 실용적인 교육은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근대적인 아프리카 정신”이 이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은 인종주의적 접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다. 가령 미국에서 온 사람이, 거기서 받은 교육과 실험실 환경 없이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더 근대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sup>6</sup>

실제로 라투르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소크연구소의 로제 기유맹이란 유명한 생리학자의 실험실에서 이 사고실험을 테스트할 기회를 얻었다. 그곳에 있는 연구자들은 어떻게 과학적 사실을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실험실의 과학자 집단을 한 종족으로 보고 실험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발표하는지 조사했다. 마치 인류학자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침팬지를 연구하거나 태평양의 어느 섬에 가서 종족을 관찰하듯이 실험실 안에서 과학자들의 행동, 관습, 규율을 연구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과학적 사실은 어느 한순간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안정화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험 기기가 과학자와 동등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주체와 객체,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연결망 속에서 새로운 사실이 구성되고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라투르가 이 결과를 사회학자인 스티브 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 1979년에 출판한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

실의 사회적 구성』은 이젠 과학기술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데, 바로 여기에서 평평한 존재론의 싹을 볼 수 있다.<sup>7</sup> 그 이후 라투르는 실험실 안에서의 작업이 실험실 밖으로 나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지 19세기 말 파스퇴르의 전염병 백신 실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보였다. 미생물이 인간과 이해관계를 맞추어 가면서 하나의 연결망을 만들어 작동하기에 비인간에게도 고유의 행위력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관점이다.<sup>8</sup> 이런 사례들을 더 모으고 이론화 작업을 추가해 1987년 『젊은 과학의 전선(Science in Action)』을 출판하여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완성된 모습을 선보였다.<sup>9</sup>

### ‘비교인류학’ 관점에서 보일-홉스 논쟁 다시 보기

라투르가 행위자-연결망 이론의 근간이 되는 평평한 존재론을 근대성과 연결해 설명한 것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프랑스판 1991, 영어판 1993)에서였다. 이 작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스티븐 샤펜(Steven Shapin)과 사이먼 셰퍼(Simon Schaffer)의 『리바이어던과 공기펌프: 홉스, 보일, 실험 생활』(Leviathan and the Air-Pump: Hobbes, Boyle, and

the Experimental Life』(1985)이었다. 라투르가 왜 이 책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두 과학사학자는 실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되며, 과학적 사실이 실험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공적인 실험과 실패한 실험을 구분할 수 있는지 등 실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실험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활동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6세기 중반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보일의 공기펌프 연구에 주목했다. 진공을 만들어서 또는 진공과 가까운 실험 조건을 만들어 공기에 무게가 있고 때론 스프링처럼 작용하며 생명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밝힌 일련의 실험을 말하는데, 진공의 존재를 철학적인 이유에서 (세상은 크고 작은 물질로 꼭 차 있다는 전제하에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정했던 홉스와 보일의 논쟁을 영국의 왕정복고 시기라는 정치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이다. 라투르가 보기에 실험에 관한 샤핀과 셰퍼의 질문은 본인이 기유맹의 실험실에서 참여관찰을 시작할 때 던진 질문과 다르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 자기가 한 것과 거의 비슷한 연구를 근대 실험 과학이 정립되던 시기를 대상으로 과학사학자들이 해내다니! 라투르는 이 책을 통해 “과학을 진지하게 대하는 비교인류학”이 시작되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sup>10</sup>

오늘날 정치철학자로 알려진 홉스의 저술에서 과학 내용을 발굴하고, 마찬가지로 과학자로만 알려진 보일의 저작에서 정치 이론을 끄집어내 비교 분석하는 작업은, 단순히 정치가 어떻게 과학 활동에 침투하는지 보는 것이나 과학적 성과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문제는 실험실이라는 공간에서, 특히 공기펌프라는 실험 기기를 통해 만들어진 현상의 진위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가려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명증한 추론의 방식을 포기하고 관찰과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사실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것이다. 라투르는 여기에 주목했다. 약간 길게 인용하면 :

“샤핀과 셰퍼는 사물과 실험실, 능력, 그리고 규모의 변화에 관한 자신들의 논의를 그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기까지 지속시킨다. 만일 과학이 이념이 아니라 과학 자체의 실천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공기펌프의 투명한 관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면, 또한 그것이 실험 공동체의 사적 공간 안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그것이 ‘모든 곳’에 도달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것은 ‘보일의 법칙’이나 ‘뉴턴의 법칙’처럼 보편적이 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이 결코 보편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최소한 인식론자의 용어로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유럽 전역에 걸쳐 공기펌프 각각의 원형의 복제, 그리고 비용은 많이 들지만 문제가 적지 않고 상당히 번거로운 장비의, 모든 실험실에서 점점 표준이 되는 값싼 블랙박스로의 점차적인 변형 과정을 추적하면서 저자들은 물리학 법칙의 보편적인 적용을 표준화된 실천의 연결망 내부로 되돌려 놓는다. 의심할 바 없이 보일의 공기 탄성에 대한 해석이 보급된다—그러나 그 보급 속도는 정확하게 실험과학자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장비가 발전하는 정도와 동일하다. 어떤 과학도 과학적 실천의 연결망을 벗어날 수 없다. 공기의 무게는 실제로 언제나 보편적인 것이지만, 연결망 안에서 보편적인 존재이다. 이 연결망의 확장에 힘입어 능력과 장비는 진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일상적인 것이 되며, 이제 진공은 우리가 마시는 공기처럼 비가시적이 된다. 그러나 진공이 과거의 의미에서 보편적이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sup>11</sup>

사적 공간에서 행해진 실험이 그 공간을 벗어나 널리 받아들여지게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실험 기기의 제작과 보급이 필수적이었다. 그렇다면 근대 과학의 보편성, 객관성, 합리성도 인간과 비인간으로 구성된 연결망 속에서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그 힘을 확장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라투르는 보일-홉스의 논쟁을 자신의 이론으로 멋지게 재해석했다.

라투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은 국가만큼이나 인간 행위의 산물이고 그렇기에 “홉스는 옳았다”라는 사편과 세퍼의 마지막 해석에 도전장을 내민다. 리바이어던을 발명해 지식과 권력이 동일한 일원론적인 사회를 제시한 홉스가 어떻게 옳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라투르의 의도는 분명하다. ‘자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것’도 인간-비인간의 연결망 속에서 구성됨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지식이 자연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위의 산물이라는 “보일의 정치적 발명품이 홉스의 과학사회학보다 훨씬 더 정교”하다고 하면서, 라투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만일 우리가 과학인류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최종적인 장애물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자연보다 더 견고하고 확고한 거시-사회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원칙에 따르는 홉스의 헌법적 발명품을 해체해야 한다.”<sup>12</sup>

## 라투르가 보지 못한 것

라투르는 자연과 관련해서는 구성주의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실재론자처럼 행동하는 이른바 '사회구성주의자'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멈추지 않는다. 홉스의 헌법적 발명품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인간 주체의 초월적 존엄성을 버려야 하며, 이런 점에서 서양인/동양인, 근대인/전근대인의 구분은 본질적이 아니고 정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서양인들)는 자신이 타자들(동양인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근대)의 과거(전근대) 역사와도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 왜 그렇게도 좋아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근대성의 문제를 단순히 시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공간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는 ‘자연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각각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듯이, ‘국지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도 연결망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여기서도 근대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말하고자 했다.

“...지역에서 세계로,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비인간의 세계로 연속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리아드네의 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리아드네 공주가

테세우스에게 건네주어 크레타의 미궁에서 빠져나올 때 사용하게 했다는 실)이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실천과 도구, 서류와 번역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끈이다. 조직이나 시장, 제도는 조잡한 국지적 지상 세계의 관계들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진 천상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서 유일한 차이는 조직, 시장, 제도가 하이브리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스로를 묘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객체들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칼 마르크스나 페르낭 브로델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총체적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보다 광범위한 연결망들의 다발로 이 연결망에는 이윤과 계산의 중심을 이루는 지점들에서 바라본 세계가 부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다. 알프레드 첸들러가 묘사한 미국의 거대기업 조직은 카프카가 묘사한 ‘조직’과 다르다. 그것은 질서 정연한 전표와 흐름도, 지역별 공정, 특별한 배치들로 구현된, 하나의 대륙 전체를 뒤덮지 않는 한에서 그 대륙 어디로든 확장이 가능한 무수한 연결망의 다발이다. 누구나 조직의 확장 과정 전체를 단 한 번의 차원 이동 없이, ‘탈맥락화’된 합리성을 발견하는 일 없이 추적할

수 있다. (...) 노턴 와이즈가 기술한 켈빈 경의 과학기술제국이나 탐 휴즈가 묘사한 전력시장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험실이나 회의실, 통제센터의 특수성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의 연결망’과 ‘힘의 선’은 분명 세계 전역으로 확장된다. (...) 국지적, 세계적이라는 양극단보다는 우리가 연결망이라고 부르는 중간의 배치들이 훨씬 흥미로운 주제이다.”<sup>13</sup>

하지만 라투르는 이 흥미로운 주제를 인류학적 방법으로 직접 연구하지 않았고, 위 인용문에서 언급한 역사 연구를 인류학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이 점은 라투르의 평평한 존재론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는 ‘국지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이어주는 연결망의 존재를 언급했을 뿐 그것의 폭력성에 대해선 주목하지 않았다. 연결망이 이어지는 순간마다 엄청난 인적·물적 파괴가 수반되고 불평등이 고착되는 문제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라투르의 맹점(盲點)이라고 한다면, 근대성 논의를 위한 보일-홉스 논쟁의 재해석에서도 그 맹점을 볼 수 있다. 그는 사핀과 셰퍼의 분석에 의존한 나머지 당시 왕립학



토마스 스프라트의 『왕립학회의 역사』(1667) 표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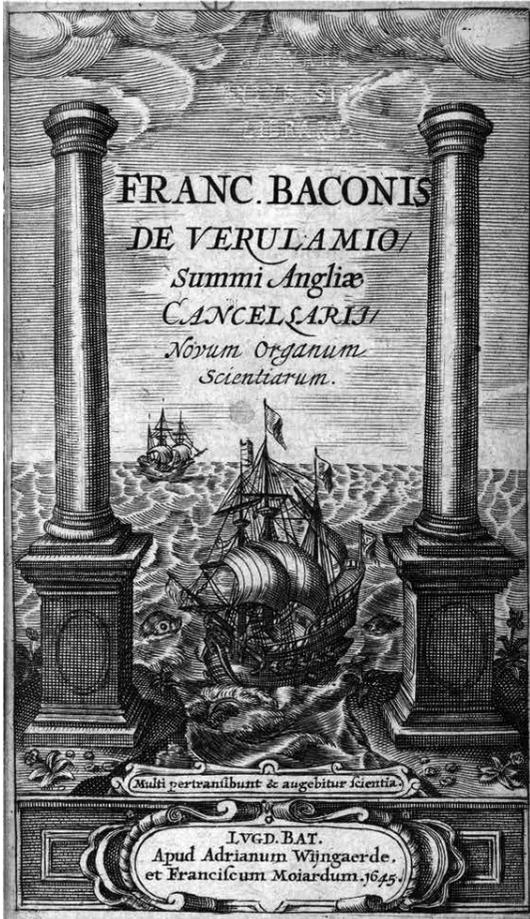
회에서 추진하고 논의했던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보지 못한 것이다. 1660년 과학자들이 학술 교류를 위해 런던에서 창립한 왕립학회의 목표와 활동은 7년 뒤에 나온 공식 역사책의 표지화에 잘 나와 있다. 왼쪽에 있는 인물은 초대 회장을 역임한 수학자 윌리엄 브롱커이고, 오른쪽은 학자 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을 한 세대에 앞서 역설했던, 당시 이미 작고한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다. 가운데 흉상은 왕립학회를 공인해준 찰스 2세 영국 국왕이고 그 위에는 천사가 국왕의 머리에 월계수를 씌우고 있다. 월계수 바로 위에는 왕립학회의 문장이 있는데, 하단부에 있는 ‘누리우스 인 베르바(Nullius in verba)’, 즉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경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실험을 강조하는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흉상의 왼쪽 뒤에 놓인 공기펌프가 보일의 실험이 얼마나 중요한 연구 프로그램이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기기도 보인다. 공기펌프 뒤에 망원경이 있고 왼쪽에는 각도와 거리를 정확하게 재는 데 쓰이는 육분의(sextant)가 보인다. 이 기기들은 천문학 연구에 중요하지만, 먼 항해에도 필수로 쓰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총이 걸려 있고 마치 베이컨이 이것을 가장 강조하듯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

지 책-관측 기기-실험 기구-총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마치 베이컨이 생전에 강조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말을 웅변해주고 있는 듯하다.

왕립학회의 창립에 미친 베이컨의 영향을 고려할 때 그의 미완성 저작인 6부작 『대혁신(Instauratio Magna)』의 제2부에 해당하는 『신기관(Novum Organum)』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20년에 출판된 이 책에서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으로 잘 알려진 연역적 방법을 대치하는 것으로 귀납법을 제안하고, 이 추론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일은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힘들기에 팀을 조직해 함께 하거나 필요에 따라 분업하는 방식도 언급했다.

베이컨의 방법론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신기관』의 표지화이다. 그림의 좌우에 있는 큰 기둥은 지브롤터 해협 양쪽에 있는 헤라클레스 기둥을 가리키며 잘 알려진 지중해의 끝을 의미한다. 그 사이를 통과하는 배는 갤리언이라는 범선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막강한 해양 국가로 힘을 키워가던 때 군함이나 대형 상선으로 사용하던 것이다. 보통 45개의 돛대를 갖추고 포열도 한두 개 있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포격전에도 안성맞춤이었다. 아래에 있는 라틴어



1620년에 출판된 프랜시스 베이컨의 『신기관』 표지화 (출처 - 위키미디어)

구절은 구약성서에 있는 말로,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것이 알려지리라”라는 뜻이다. 사실 이 그림은 1606년에 다른 책의 표지화로 쓰인 것인데 베이컨이 자유롭게 가져다 쓴 것이다.

이 그림들은 바로 지금 ‘대항해시대’(15세기~18세기) 또는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부르는 시기의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잘 보여준다. 16세기에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인도 연안, 이란, 동아프리카에 이르는 넓은 세계에 강력한 해상 체제를 구축했던 포르투갈의 영향력이 17세기로 들어가면서 줄어들고 네덜란드가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1602년에 동인도회사를 설립해 포르투갈이 독점하던 아시아와의 후추, 향신료 무역을 확대해 나갔고, 국가로부터 독점권을 인정받아 조약을 체결하거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준국가의 기능을 해나갔다. 영국은 1588년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고 해상 세력으로 등장해 네덜란드보다 이른 1600년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전통적인 모험사업 방식(무역선이 돌아오면 투자금에 따라 이득을 나눠 갖는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네덜란드보다 좀 뒤처지게 되었다. 이에 1619년 영국과 네덜란드는 협정을 체결해서 영국은 인도 쪽에,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 집중하기로 했다.<sup>14</sup>

이 모든 과정이 평화로운 지식과 문물의 교류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에 서양사학자인 주경철은 근대 초기 해양 세계의 팽창이 가져온 가장 큰 특징으로 “폭력의 세계화”를 손꼽았다. 해상을 통한 문명의 상호 접촉은 처음부터 폭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관계가 구조화되고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근대성과 폭력을 연결해 말한다.

“비교적 고립되어 발전해왔던 각 문명권들은 15세기 이후 외부 세계를 향해 활기찬 해상 팽창을 시도했다. (...) 그러나 해양 네트워크의 발전은 단순히 상호 교류의 수평적인 확대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호 접촉과 소통은 곧 갈등과 지배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세계의 수직적인 구조의 형성으로 귀결되었다. 네트워크를 따라 평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진 만큼이나 무력 충돌, 경제적 착취, 환경 파괴, 종교적 탄압이 일어났다. 이처럼 바다를 통해 온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복잡다기한 사건들이 전개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혹은 지구사(global history)가 탄생한 것이다.”<sup>15</sup>

## 대항해시대와 인류세가 만나는 시점

샤핀과 세퍼가 17세기 중반 보일과 홉스 간의 논쟁에서 지식 생산의 문제와 정치 질서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다고 할 때 다루는 정치는 주로 국내 정치를 의미했다. 라투르도 영국에서의 정치 이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기펌프와 같은 비인간 행위자에 주목했다. 하지만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던 영국의 관심은 세계의 정치 질서를 향해 있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신흥 부르주아 사업가들은 무역의 확산과 자본의 확대 그리고 지식의 증진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정적인 해상 네트워크 건설에 필요하면 군사적 개입을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왕립학회 역사책의 표지 그림에 총이 들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단순히 과학 지식과 정치 질서의 공동 생산이 아니라 이와 함께 국력과 폭력의 공동 생산을 뜻하기 때문이다.

영국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프랑스에서도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조직하기 위해 과학학림원(Académie des sciences)이 1666년 출범했다. 당시 중상주의 정책을 펴던 재무장관 콜베르가 국왕인 루이 14세에게 제안해서 만든 것으로

로, 왕립학회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의 거대 프로젝트나 실용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많이 수행했고 이를 위해 전 유럽에서 최고의 과학자들을 봉급을 주고 모셔왔다. 영국에서처럼 리바이어던으로 표현된 국가와 시민 사이의 사회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즉 정부가 과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과학 연구가 제도화된 것이다.

18세기에 들어 전 세계의 해상 네트워크는 영국과 네덜란드 세력으로 양분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편되어 있었고, 각국의 동인도회사가 무역 업무를 주도하고 상업 거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1664년에 콜베르에 의해 설립된 프랑스 동인도회사도 이 경쟁 구도에 뛰어들어 조금씩 영향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인도에 진출한 프랑스 동인도회사는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무역 경쟁 수준을 넘어선 정치·군사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당시 무굴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인도는 제국의 지배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회사들이 병사를 모집하고 전투를 벌여 군사적 지배의 영역을 확보한 후 지방의 정치 경제 세력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이었는데, 결국 이들이 실질적인 통치자로 변모해간 것이었다. 1740년대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직접 징세하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식민 지배의 모습을 보였다. 해상 네트워크와 내륙

지배 네트워크가 연결되기 시작한 것이다.<sup>16</sup>

1768년부터 1779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행해진 제임스 쿡 선장의 세계 일주 탐험은 강력한 해상 세력으로서 영국의 성장과 전 지구적 과학 연구의 관련성을 잘 보여준다. 제임스 쿡은 가정 형편상 초등 교육밖에 받지 못한 ‘흙수저’이지만 바다를 통해 신분 상승을 한 사람이다. 어려서 석탄 운반선의 견습 선원으로 고용된 쿡은 항해에 필요한 대수학, 삼각 측량, 천문학 등을 현장에서 배웠고, 이어 발트해의 무역선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능력을 발휘해 항해사를 거쳐 선박의 항해장까지 올라갔다. 1755년 무렵 영국이 유럽 국가들과의 분쟁에 대비해 군비를 늘리고 있던 것을 보고 기회를 포착한 쿡은 해군에 자원 입대했다. 말단에서 시작했지만 빠르게 항해장으로 승진한 쿡은 7년 전쟁(1756-1763에 유럽의 모든 열강이 참여하여 유럽과 식민지 지역에서 벌인 대규모 전쟁) 중 1759년에 캐나다에서 프랑스군과의 전쟁에 참여했다. 이때 뉴펀드랜드의 복잡한 해안선 지도를 정밀하게 작성해 해군성과 왕립학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편 왕립학회는 금성의 태양면 통과를 관측할 목적으로 남태평양의 타히티에 연구단을 파견할 계획을 세우고 조지 3세 왕에게 청원했다. 드물게 일어나는 이 현상의 관측을 통해 금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과

태양 사이의 거리도 더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군성의 협조를 얻어 쿡을 선장으로 임명한 왕립학회는 25세의 젊은 식물학자인 조지프 बैं크스를 파견했다. 부친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बैं크스는 본인의 여행 경비뿐만 아니라 천문학자, 자연사학자, 화가, 하인 등 8명의 경비도 부담했다. 순수한 과학 탐험을 위한 여행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1768년 영국을 떠난 인데버호는 남아메리카 남단 혼곶을 횡단해 이듬해 4월 목표지인 타히티에 도착해 예정대로 천체 관측을 했다(관측 장비의 해상도 문제로 관측 결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정밀하지는 않았다). 이어 쿡 선장은 임무를 완수하고 밀봉된 봉투 안에 있는 다음 임무를 수행하라는 해군성의 지령에 따라 봉투를 열어 보았다. 극비 임무는 이전의 탐험가들이 말하고 전해왔던 남극 대륙을 발견하라는 것이었다.<sup>17</sup>

쿡 선장은 바로 남쪽으로 배를 돌려 항해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여행에서는 남단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으나,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뉴질랜드와 호주의 해안선을 정밀하게 측정해 지도를 만들고 처음 '발견'한 곳에는 이름을 붙였다. 또한 상륙해 국기를 게양하고 축포를 쏘며 도착한 사실을 알리는 명패를 남기는 일종의 의식을 수행했다. 가능하면 원주민과의 갈등을 피하려고 했으나 충돌도 종종 있었다. 조지프 बैं크스는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 그때

까지 유럽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물과 식물을 자세히 묘사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했다. 또한 원주민들의 식생활, 관습, 규율 등에 대해서도 관측해 기록을 남겼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그림에서 객체가 그 환경과 분리된 채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뉴질랜드에서 만난 마오리족 사람은 배경이 전혀 없이 신기하게 보이는 장식과 문신을 강조해 그렸다. 일종의 탈맥락화한 대상으로 원주민을 바라본 것이다.

약 3년의 항해를 마치고 귀환한 쿡 선장과 बैं크스는 바로 큰 명성을 얻었다. 해군 대위에서 중령으로 승진한 쿡은 1772년 남극 대륙 발견을 위한 두 번째 항해를 이끌었다. 비록 남극 대륙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남극권을 통과해 눈과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들을 가까이서 관측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항해 후 쿡은 왕립학회 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학회에서 주는 최고 영예의 코플리 메달을 수여했다. 그리고 세 번째 항해에서는 북해 항로를 탐사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서 원주민들에게 피살되었다. 한편 बैं크스는 1778년 왕립학회 회장이 되어 이후 41년간 학회와 영국 과학계를 이끌었다.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는 대항해시대의 정점에 해상 세력으로서 영국의 팽창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된다. 인



조지프 뱅크스와 동승한 화가가 1773년에 출판한 『남쪽 바다의 여행기』에 나오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인물화 (출처 - 뉴질랜드 정부의 역사 웹사이트)

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로를 개척하고 무역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서 점점 내륙으로 진출해 식민 지배를 하고 새로운 영토를 발견해 선언하는 일로 전환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로, 인간에 의한 자연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세계 질서 재편, 제국주의의 등장, 식민 지배의 확산, 질병의 확산과 생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인류세는 주경철이 언급한 “폭력의 근대화”의 결과이다.

### 근대성 기억의 연결망

2019년과 2020년 뉴질랜드와 호주는 각각 제임스 쿡 선장 상륙 25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행사를 거행했다. 하지만 원주민 출신 주민들은 이 행사를 앞두고 몇 년 전부터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쿡 선장 동상에 우스꽝스러운 수영복 무늬를 그려놓거나 페인트를 붓고 낙서를 했다. 그곳에 이주한 유럽인들의 입장에서는 쿡 선장의 상륙이 건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겠지만, 원주민들에게는

전혀 다른 사건이었다. 그들에게는 살육과 침탈과 학살로 이어지는 부끄러운 역사가 시작한 시점이었다. 쿡의 탐험대가 도착해 마오리족 6명을 총으로 쏘 죽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 것인가? 뉴질랜드의 이 지역 해안 이름을 ‘빈곤만(Poverty Bay)’이라고 명명한 것이 정당한가? 쿡 선장이 호주의 시드니를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전에는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인가? 날짜를 바꾸라는 등의 요구를 한 것이다.<sup>18</sup>

세계는 존재론적으로 평평한가? 여러 주체와 객체가 촘촘히 만들어진 연결망 속에서 동등한 존재론적 지위를 가진다는 관점에서 폭력의 근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의 연결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류세는 유형·무형의 여러 유산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 1

브뤼노 라투르, 홍철기 옮김,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128쪽. “회수”라는 표현은 저자 서문에 나와 있다. 이 책의 프랑스어 원본은 1991년에, 내용을 수정 증보한 영어본은 1993년에 출판되었다.

## 2

Bruno Latour, *Facing Gaia: Eight Lectures on the New Climate Regime*, Polity (2017), p. 116.

## 3

브뤼노 라투르, 박범순 옮김,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이음 (2021), 13쪽.

## 4

레비 R. 브라이언트, 김효진 옮김, 『『객체들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테제』 (2021. 4. 25. 화상 강연).

## 5

라투르,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 139쪽에서는 라투르 본인 스스로가 거대한 가속의 시기에 살아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 6

라투르가 코트디부아르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서는 Ava Kofman, “Bruno Latour, the Post-Truth Philosopher, Mounts a Defense of Science,” *The New York Times Magazine* (2018. 10. 25) 참조.

## 7

Bruno Latour and Steve Woolgar, *Laboratory Life: The Social Construction of Scientific Facts*, Sage. (1979). 이 책의 개정판은 1986년에 나왔는데, 부제에서 ‘Social’을 생략했다. 한국어 번역은 개정판을 기반으로 했다. 브루노 라투르·스티브 울거, 이상원 옮김, 『실험실 생활: 과학적 사실의 구성』, 한울 아카데미 (2019).

## 8

Bruno Latour,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이 책의 프랑스어 원본은 1984년에 나왔다.

## 9

브뤼노 라투르, 황희숙 옮김, 『젊은 과학의 전선 : 테크노사이언스와 행위자-연결망의 구축』, 아카넷 (2016). 한국어판 제목은 영어 원본의 의역이다.

## 10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55쪽.

## 11

같은 책, 75-76쪽.

## 12

같은 책, 80쪽.

## 13

같은 책, 301-302쪽.

## 14

주경철, 『대항해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2-3장.

## 15

같은 책, 머리말.

## 16

같은 책, 105-112쪽.

## 17

토니 호위츠, 이순주 옮김, 『푸른 항해: 캡틴 쿡의 발자취를 따라서』, 뜨인돌 (2003).

## 18

Eleanor Ainge Roy, “Vandalism forces New Zealand council to remove Captain Cook statue” *The Guardian* (2018. 10. 2); “Captain Cook statue vandalised in Melbourne before Australia Day” *The Guardian* (2018. 1. 25)